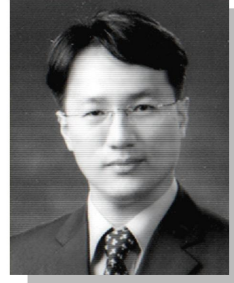


Endo or Perio? Chicken or egg?



이 우 철 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근관치료와 치주치료는 치료 방법과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치아를 살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치료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치료과정이 지루하고 예후를 장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료에 들이게 되는 노력과 수고마저 보상받을 길 없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술자들이 꺼려하는 계류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작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논란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근관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치주치료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하는 치료 우선순위 미루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치료했던 치아의 증상이 재발하거나 실패하여 발치라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치료하기 전부터 서로에게 귀찮은 뒤치닥꺼리를 떠넘기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때로는 근관치료나 치주치료 단독으로도 동요도나 증상이 줄어들고 치근단 병소가 치유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결과를 모든 유사한 증례에 시도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고자하는 영웅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보람을 느꼈던 만큼 실망도 찾아오게 마련이어서 증례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논란이 되는 것과 유사한 치주원인 병소인지 치수 및 치근단 질환 연관 병소인지 진단하기 힘든 경우의 증례에 대한 확진방법과 선택가능한 치료방법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치료에 의한 예후 평가를 통해 술자에게 필요한 진단방법 중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일상의 진료과정에서 시행하는 진단과 치료방법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연자 약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존과 수련 및 석.박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ster of Science In Oral Biology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Endodontics 수련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Endodontics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